

社會의 病的 現象 (七)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톨스토이의 預言 (續)

그 預言에 말하기를 全世界가 商事主義로 唯物的 生活만 하다가는 一九二一年에 爲先 南歐에서 衝突(伊土戰爭)이 起할 것이오, 一九一四年에는 全歐 一九一六年에는 全世界가 火中에 入하리라 하얏스니, 거기까지는 實現이 되얏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此難이 一九二〇년에 中止되고, 一九二五年까지는 北歐의 一人이 全世界를 手中에 弄絡하리라. 그런데 此人은 『나폴레온』 갓흔 將軍도 아니오, 『쉴스마악[비스마르크]』갓흔 外交家도 아니오, 一新聞記者의 人格이라(레닌?) 하얏습니다. 一九二五年 以後는 人種的 運動이 盛行하야 半世紀 後에는 全地球가 『튜튼』族國, 『래틴[라틴]』族國, 『슬라브』族國, 蒙古族國의 四大強國으로 分立되 人種鬪爭이 起할 터이니, 此 戰爭은 眞實로 人類의 自滅的 決鬪이라. 全人類가 地獄에 入할 터이나 그 同時에 耶蘇가 再現하리라 하얏습니다. 이 預言이(國際評論 一九一七年 一月號 參照, 瑞西國『쭈리히[취리히, 쩌리히]』市 發行) 모든 預言과 갓치 虛謊하다 할지라도 人類의 歷史的 發展經路를 根據로 한 未來의 推測인 것은 事實이라 하겡습니다.

歐洲思想界의 反動的 現象

十八世紀 以來로 日進되는 自然科學이 人類 社會生活에 大功績을 成就하얏습니다. 此를 因하야 우리 人類의 固有한 卽 우리의 天性이 要求하는 宗教的 生活이 衰退하고 唯物論의 極盛時代가 되얏습니다. 天地의 運行은 機械的으로 說明이 되고, 物質의 原性은 化學的 原素와 物理學的 動力으로 說明이 되고, 生物의 發展은 偶然과 機械的 動作을 因하야 成立이 된다고 說明이 되고, 生理는 化學的이오 心理는 分子動作이라 하야, 幾千年 以來로 信仰하든 天神이 死하고, 美術的 感情은 肉體의(生殖感을 因한) 好不好感이오, 社會生活은 純全한 經濟生活이오, 道德生活은 主利論으로 說明되얏습니다. 存在와

生活의 意義는 機械的 動作, 惟物的 作用, 肉體的 物欲, 主利的 契約으로 說明된다 하였습니다. 此 思潮가 이와 갖치 一時 盛行됨은 自然科學의 그 偉大한 具能的 成功과 同伴함이였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와 갖흔 人格은 此 思潮의 奴隸가 되지 아니하고, 未久의 衝突을 預期하였습니다. 如斯히 上下가 交征利하는 時代의 不自然한 洪水가 漸々 膨脹되야 一九一四年에 暴流가 되였습니다. 그 前에도 勿論 人類의 精神的 生活이 前無後無하게 無味함을 自覺한 先覺者가 업지 아니 하였습니다, 임의 一定한 方向으로 暴流되는 思潮에 對抗할 勢力이 無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萌發하는 新思潮는 人類는 肉體와 相異한 心靈을 有하고 衣食住의 生活 以外에 智情意의 生活이 有함을 우리게 自覺식히여 주었습니다. 德國 哲學界에 新『칸트』主義가 生하고, 『히켈[헤겔]』의 影響으로 唯物論의 風氣가 充滿하든 『예나』에서 尙今도 全力으로 活動하는 『어[이]켄』 教授는 唯物論 排斥과 理想主義 更新에 獻身하는 터입니다. 英國에서 一時 流行되든 『스펜서』哲學은 只今 幽徑에 埋한 배 되고, 法國의 『샤역손[베르그송]』, 美國의 『제임스』는 宗教의 自立的 權威를 主唱하야 十九世紀의 唯[物]論은 古埠를 成할 趨勢에 入합니다. 思想界도 如斯히 反動力이 盛기여 一時 文藝界에 盛行하든 寫實主義도 衰弱하야지고, 只今은 『베데킨드[베데킨트]』(德), 『슈트린베역』(瑞典), 『[로]맹롤랑』(法), 『도스토예부시커[도스토예프스키]』(俄), 『샤부스』(法) 등이 이 大陸에서 愛讀됩니다.(戰爭中 德國戰線에서 가장 多讀된 것은 新約, 『과우스트』, 『짜라투스트라』라 합니다.) 美術界에는 아직도 『샤산[세잔]』(法), 『리버만[리베르만]』(德), 『호들러』(瑞西), 『샤간리니』(伊瑞) 등이 主要 人格이며, 表現主義가 處々에 盛行하니 要컨대 純情만 發露함이 一般의 反動的 傾向이라 하겠습니다.

歐洲人과 東亞思想

그런데 더욱히 우리 東亞에 對하야 滋味잇는 現象은 歐洲에서 我東亞文藝를 前無하게 歡迎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所謂 『舶來物』은 모다 歡迎하든 것 갖치 如何한 文藝書類든지 東亞思想에 關한 것이라 하면 速히 賣絶이 됩니다. 就中에도 中國文學은 翻譯만 되면 暫時 동안에 賣絶이 됩니다. 그러나 儒敎의 書類는 讀하고 落心하는 이가 만습니다. 歐洲人의 要求하는 것은 歐洲人의 所謂 無趣味하고 乾燥한 處世則과 如한 論語 孟子가 안입니다. 그 嗜好[하]는 것은 神秘한 宇宙論과 隱士的 人生觀의 純美唯情의 傾向을 有하는 書類입니다. 如斯한 것으로 우리 東亞가 歐洲人을 接待하라면 老列莊과 唐漢詩라 하겠습니다.